

항공교통본부,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 실제훈련

- 9월 26일 화생방 테러대응 5개 기관 합동훈련... 실질 대응역량 높이는 종합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항공교통본부(본부장 김상수)는 9월 26일(화) 오후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「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, 119특수구조대, 경찰청, 환경청, 보건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며,
 -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미상의 기체가 누출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.
 -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,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.
-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시 ①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, ②경찰청 현장 통제, ③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 및 검체 탐지, ④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, ⑤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, ⑥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하였으며,
 - 특히,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상황전파,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, 경찰,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.
-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은 “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사회·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실질적인 대응역량과 체계를 갖추 수 있는 내실 있는 훈련이 되길 바라며,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한편, 항공교통본부는 국가중요시설 ‘가급’으로 ’17년 출범하였으며,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교통 흐름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항공교통본부 운 영 지 원 과	책임자	과 장	임석홍 (053-668-0211)
		담당자	사무관	허철혁 (053-668-0233)



□ 개 요

- (일시/장소) 2023.9.26.(화) / 항공교통본부
- (참여기관) 항공교통본부, 대구 119특수구조대 · 경찰청 · 환경청 · 보건소



□ 중점 훈련내용

-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화재방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· 현장 통제 · 제독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점검

□ 훈련 진행 시나리오

